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한번도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 “피곤해서 태반주사 좀 맞은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시간은 많은 것을 해결해 준다. 그때는 몰랐던 것을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아픈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게 마련이다. 또한 시간은 공지에 몰린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곧 하야라도 할 것 같던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유의 뻔뻔함을 희박했다.

100만이 넘는 인파가 촛불을 들었던 12월 2일, ‘박사모’를 봤다. 그들은 서울역 한구석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박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외치고 있었다. 수십 명 될까 말까 한, 초라한 행색의 그들을 보면서 분노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먼저 들었

박사모의 헛다리

다. 주군의 활약에 힘을 얻어서일까. 한동안 웅크리고 있던 박사모도 힘을 낸다. 이전 박사모도 광화문 촛불을 내놓으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숫자 또한 늘어서, 이제는 수만의 인파를 헤아린다.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도 상당 부분 박사모의 것이다. 하지만 그 댓글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든다. 그들이 헛다리를 짚고 있는 듯해서다.

지금 그들이 물고 늘어지는 것은 JT·BC가 특종으로 보도한 태블릿피시다. 1) 그 취득 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데다 2) 그게 최순실의 것도 아니며, 3) 안에 담긴 내용도 다 JTBC의 조작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태블릿피시에 매달리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박 대통령이 이 지경으로 전락한 시초가 다 태블릿피시 때문 아니던가.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환상에 빠진다. 태블릿피시만 없애 버린다면 박 대통령이 탄핵당할 일도 없고,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나라를 다스리던 그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 말이다. 그들의 단순 무식함이 한편으로는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안스럽다. 이 시점에서 태블릿피시는 없어도

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태블릿피시가 박 정권의 몰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태블릿피시를 통해 최초로 입증됐기 때문일 뿐, 국정 농단의 증거는 그 후 이루어진 검찰의 수사에서 밝혀진 것들이다.

기업을 협박해 뜯어낸 돈으로 최순실이 지배하는 재단을 만든 것, 삼성에게 좋은 일을 해 주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을 돕게 한 것, 최순실 지인의 회사가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한 일, 최순실이 다니는 단골 성형외과 의사의 부인이 경영하는 업체를 몰심양면으로 도운 것 등등, 박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물론 박 대통령은 시종일관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지만, 그건 사람이 뻔뻔해서 그런 것일 뿐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석고대죄하고 대통령직을 물러났으리라.

사정이 이런 데도 박사모는 한결같다. 이 순간에도 포털사이트 기사를 찾아가 “태블릿피시 최순실 거 아니에요”라며 징징거리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아쉽

다. 박사모에 제대로 된 리더가 없다는 것이 말이다. 다음 사례를 보자. 어느 분이 “BBC에서도 촛불집회를 비판했다”는 글과 함께 비틀즈의 명곡 ‘에스터데이’의 영문판 가사를 박사모 게시판에 올렸다. 다들 난리가 났다. “역시 BBC!”라는 댓글부터 “우리나라 언론이 빨갱이로서 그렇지, 공정한 해외 언론은 다 박 대통령 편이다”라는 댓글까지, 수십 개의 댓글이 박사모 게시판을 수놓았다. 그 중 영어를 읽을 줄 아는 한 분이 ‘이거 좀 이상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얼마 전에는 박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김정일에게 보낸 감동적인 편지가 “문재인이 보냈다”며 박사모 게시판에 올라온 적이 있다. 그때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됐다. 물론 무식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장난을 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박사모에 제대로 된 리더의 필요성에는 공감할 것이다. 그래서 부탁한다. 팬클럽 분들을 모신 뒤 그들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시라. 이때다 싶어 기여 나오신 윤창중이나 정미충처럼,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분들과 더불어 짠 작전은 박사모를 점점 더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 뿐이니까.

종교칼럼

무등의 가치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원목 선덕사 주지

그리고 정유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무등산 위로 해가 떠오른다. 광주시민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무등산은 그 이름이 너무나 훌륭하다. 어떤 이들은 무등(無等)을 등급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 평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무등은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말로 같은 것, 비슷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불교인이라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경전인 반야심경에는 무등등주(無等平等)라는 구절이 있는데, 같은 것이 없는, 비교할만한 것이 없는 ‘다라니’라는 말이다. 비교할만한 것이 없으니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뜻으로 나오는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下唯我獨尊)이다.

산세의 강건함으로 보자면 설악이 있고, 크고 웅장하기로는 남악(지리산)이 있지만, 그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비교불가’라고 외치는 것이 ‘무등’이라는 이름의 산이다. 가장 높지도, 가장 크지도, 가장 험준하지도 않은데 무등이라니, 지나친 과장이요 실상은 거기에 불과한 것일까. 또 우리의 상식으로 최고라한 1등인데, 무등도 최고라 하니 이것은 어떻게 다 르단 말인가.

누군가 당신에게 ‘가족 중에서 누가 제일 귀한가’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똑같이 귀하다고 하는 말은 정직하지 않다. 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을 때 아이가 고민에 빠지는 것은 엄마와 아빠가 똑같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엄마는 엄마대로 좋고, 아빠는 아빠대로 좋다. 나이 드신 아버지, 어머니나 말썽꾸러기 아이들도 제각각 다 귀하다. 똑같이 귀한 것이 아니라 제각각 다 귀하다. 비교해서 누가 더 귀한 것이 아니라 제각각 절대적으로 귀하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생신에는 늙은 어머니가 제일 귀했는데, 중학생 아들이 음식을 먹다가 체하니 생일상 받은 어머니를 제치고 중학생 아들이 제일 귀한 존재가 된다. 당장 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각각 다 존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우선할 사람이 달라진다. 이것이 무등이다.

모두가 제각각 고유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다는 무등의 관점은 확고한 가치로 배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강화되며,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공동체적 정의

로 연결된다. 서울대 입학, 대기업 취직이라는 문 앞에 줄 세워진 획일적 학교 교육은 설 자리를 잃고, 아이들의 적성과 발달에 따라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교육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잘 살아보자고, 일 등하자고, 부자 되자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일등이 되어 성공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승자독식 시스템은 결국 양극화 등 ‘헬조선’으로 불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았고, 대통령의 국정 농단도 같은 질병에서 생겨난 것이다. 일등주의가 아닌 무등주의, 남바람이 아닌 온리원(only one)으로 가치를 전환하는 것이 ‘헬조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다.

1월 5일, 음력 12월 8일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이룬 날이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연기의 진리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등이다. 어리석음의 어둠을 깨뜨린 깨달음의 빛, 그래서 무등산에 깃들어 있는 빛고을이라는 이름은 예사롭지 않다. 정유년 벽두에 광주의 가치, 무등의 가치로 거듭나는 화엄 세상 대한민국을 꿈꾼다.

기고

반려동물은 소유물이 아니다



변광진 조선대 영어교육과 3년

세다. 동물보호, 복지실태조사 등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유기동물 수는 8만2100마리에 달한다. 2014년 8만1200마리에서 1.2% 늘어난 수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과 동시에 유기동물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로 인해 부작용도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유기동물들이 도로에 난입해 교통에 혼란을 주거나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 배설물에서 병원균이 번식해 공중위생을 해치기도 하고, 배설물들은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 때로는 야산에 서식하며 등산객을 위협하기도 한다.

다수의 사람이 처음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다. 집에서 느끼는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거나, TV에 나오는 귀여운 모습에 반해 동물을 키우기로 결심하게 된다. 처음 애정을 가지고 반려동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책임있게 키우겠다는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석된다. 먹이를 주고 배설물을 치워야하고, 꼬박꼬박 예방접종을 위해 동물

병원을 찾은 것 자체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시간을 내기도 힘들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다. 사실상 항상 반려동물과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일도 빈번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에게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해주는 동물등록제가 지난 2014년 전국적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등록 대상이 고양이 등 다른 동물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개에만 한정됐다는 점, 그리고 실제등록률이 17%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친구들과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보기 위해 팀을 꾸렸다. 조선대학교 ‘캠프씨디’나. 유기동물 발생현황과 문제점 등을 담은 광고지를 제작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또 이튿날 제공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현재 광주시 동구 동명동 카페 ‘셀렉 토끼피와 묘한녀석들’, 산수동 ‘민동물병원’에서 이튿날 신청을 받고 있다.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에 다행해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친구들과 밟고 있는 이 작은 활동이 광주지역 유기동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튿날을 가져 유기동물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뚝하다.

이제는 애완동물(愛玩動物)보다 반려동물(伴居動物)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단순한 유희의 대상에서 삶에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 또는 살아 있는 생명체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하며, 인식 또한 성숙해야할 필요가 있다. 동물을 기우려는 성급한 결정에 앞서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자칫 소중한 한 생명이 사라지고 사회문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社說

수도권 복귀 기업 지원, 지방은 어쩌라고

정부가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세제·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해외에서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만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내년부터는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부분 복귀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투자 활성화 및 고용 확대에 목적이 있으며 기업에 축적된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비수도권이 복귀할 수 있는 유턴기업을 수도권이 빨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여건이 불리한 지방의 기업 유지는 더욱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과밀 억제나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반

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갈수록 지방 유턴 기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도권 복귀를 지원하게 될 경우 소비시장이 크고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으로 유턴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수도권 성장 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까지 포함될 경우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해져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게다가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독소조항도 있다. 기존 법에 있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의 범위를 축소할 것인데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질 경우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투자활성화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난개발을 무릅쓰고 손쉬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인데 정부의 안중에는 지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같아 씁쓸한 마음 감출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도권 과밀 억제 도권 과밀 억제나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반

윤창현 시장의 인적 쇄신 빠르고 단호하게

윤창현 광주 시장이 정유년 새해 벽두부터 ‘인사 쇄신’의 칼을 빼들었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등의 기관장에게 자진 사표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이처럼 윤 시장이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은 지난해 발생한 측근 비리도 큰 역할을 갖추는 교육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잘 살아보자고, 일 등하자고, 부자 되자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일등이 되어 성공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승자독식 시스템은 결국 양극화 등 ‘헬조선’으로 불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았고, 대통령의 국정 농단도 같은 질병에서 생겨난 것이다. 일등주의가 아닌 무등주의, 남바람이 아닌 온리원(only one)으로 가치를 전환하는 것이 ‘헬조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다.

1월 5일, 음력 12월 8일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이룬 날이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연기의 진리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등이다. 어리석음의 어둠을 깨뜨린 깨달음의 빛, 그래서 무등산에 깃들어 있는 빛고을이라는 이름은 예사롭지 않다. 정유년 벽두에 광주의 가치, 무등의 가치로 거듭나는 화엄 세상 대한민국을 꿈꾼다.

현재 광주시 산하 공기업은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4곳과 출연기관 17곳이 있다. 여기에 출자기관 2곳, 기타 법인 3곳으로 모두 26곳이다. 이 가운데 광주도시공사 등 8곳의 임원은 올해 임기가 마무리된다. 따라서 이들이 사표 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사표 수리 대상은 생각보다 많이 될 수 있다. 윤 시장이 읍짐마속의 심정으로 쇄신의 칼을 빼든 만큼 대상자 폭은 더욱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기다.

윤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꼬인 인사 때문에 번번이 시장 운영에 발목이 잡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적 쇄신의 결단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이번 고강도 인적 쇄신을 통해 그동안의 인사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고 시민시장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無等鼓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갑자기 북적이는 곳이 있다. 골목골목 들어선 로또 판매점이다. 편의점에서 로또를 함께 판매하는 곳도 많은데, 어디를 가든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비좁은 편의점 안 이곳저곳에 서거나 앉은 사람들은 ‘누가 볼세라’ 탁자 위에 코를 박은 채, 미리 써 온 당첨 예상 번호를 로또 용지에 옮겨 적는다. 손에 로또 용지를 움켜쥐고 채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진 고객들을 응대하느라 편의점 직원들도 진땀을 흘린다. 토요일은 로또 판매일이어서 오후 8시까지밖에 로또를 판매하지 않는 만큼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서는 사람들도 눈에 띈다.

로또에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무려 814만 분의 1이다.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429만 분의 1)보다 훨씬 낮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단돈 1천 원도 투자하지 않을 만큼 낮은 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로또 판매점은 문전성시다. 그 이유가 뭘까?

단돈 몇천 원으로 ‘일주일 간의 희망, 7일간의 선행’을 살 수 있어서라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또한 인

생의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들에게엔 사치로 보일 뿐이다.

지난달 27일 광주 지역 한 단독주택 2층 안방에서 발견된 로또 3000여 장엔 ‘814만 분의 1이라는 희박한 확률에 인생을 건’ 우리 이웃의 고단한 삶이 묻어 있었다. 이미 폐지가 되어 버린 로또 복권과 함께 숨진지 여러 달이 지나 백골화된 50대 남성의 시신 옆에는 로또 당첨번호를 분석해 놓은 메모도 발견됐다. 나이 50이 넘도록 홀로 살던 이 남

성은 공공근로를 해 번 돈이 남으면 복권을 사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매주 복권을 사러 가면서 로또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로또 번호 분석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리는 없을 터다. 로또 3000장이면 현금으로는 1500만 원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로또 당첨을 확신했다고 보다는 로또 이외에 마땅히 마음 기댈 곳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성싶다.

“어리석게 무슨 로또냐?”라고 허를 찌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별다른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홍행기 사회1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 팩스 062-222-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